

씩씩리, 진짜 '씩씩이' 했다... 음원차트 · 시청률까지 1위

25일 정식 데뷔... '다시 여기 바닷가' 공개

내달 1일 멤버들 솔로곡 음원 공개... '기대'

씩씩리(SSAK3)가 그야말로 씹씩이했다. 오는 25일 정식 데뷔를 앞둔 MBC '놀면 뭐하니?' 여름 댄스 혼성 그룹 씹씩리의 데뷔곡 '다시 여기 바닷가'가 공개와 동시에 그룹 이름처럼 주요 음원차트 1위를 씹씩이하며 메가톤급 인기를 몰고 왔다. 더불어 '놀면 뭐하니?'의 시청률, 화제성도 고공행진하고 있다.

지난 18일 방송된 MBC '놀면 뭐하니?'에서는 데뷔를 앞둔 씹씩리유두래곤(유재석), 린다G(이효리), 비룡(비, 정지훈)의 앨범 재킷,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과 씹씩리의 데뷔 스케줄을 공개하며 기대감에 불을 지폈다. 이날 방송분은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 기준 1부 7.3%(전국 기준), 2부 9.0%를 기록했다. 동시간대 방송된 KBS '불후의 명곡' 1부 5.9%, 2부 8.5%보다 앞섰다.

이날 데뷔곡 '다시 여기 바닷가'의 녹음과 안무 연습에 이은 씹씩리의 앨범 재킷 촬영은 최고의 패션 포토그래퍼 홍장현과 함께 L.A.의 사막을 연상시키는 곳에서

진행됐다. 데님, 화이트 정장, 네온 컬러 의상, 멤버들이 직접 만든 우정 티셔츠 등 90년대 레트로 스타일을 완벽히 소화해낸 씹씩리의 범접 불가 매력 시선을 사로잡았다. 씹씩리는 90년대 가요계를 대표하는 아이콘 듀스와 클론, 롤라, 업타운, 서태지와 아이들 등의 스타일을 재해석, 씹씩리만의 멋을 뽐냈다. 각 멤버들의 색을 살리면서도 함께할 땐 씹씩리의 새로운 색을 만들어내는 환상 팀워크를 자랑했다.

린다G는 "사진도 한 방에 나오고 합이 잘 맞는다"며 찰떡 팀워크에 놀라워하는가 하면 "우리 헤어질 때 우는 거 아니냐"며 벌써부터 이별할 때의 아쉬움을 언급했다. 이어 "같이 있으니까 좋다"며 유두래곤과 비룡을 향한 전 애정을 드러냈다. 비룡 역시 "진짜 20대 때로 돌아간 그때 느낌이 든다"며 멤버들과의 시간이 인생에서 또 한번의 소중한 추억이 될 것을 예감케 해 몽클함을 자아냈다.

이어 BTS의 전담 뮤직비디오 감독으로 유명한 롬펜스(최용석)와 함께 한 뮤직비

디오 촬영 현장에선 씹씩리의 레전드 카리스마와 프로페셔널한 매력이 폭발했다. 린다G는 레전드 미모를 재소환했고, 합창결의 화끈한 아우리를 뽐내며 반전 매력 발산했다. 자동차 정비사로 변신한 유두래곤, '꾸러미'를 장착한 비룡은 돈독한 형제 케미로 웃음을 선사했다.

특히 비룡은 명품 복권을 뽐내며 명불허전 댄스로 섹시미를 발산했고, 현장의 인간 비타민으로 에너지를 불어넣었다. 이에 질세라 유두래곤도 자신의 분신과 같은 안경을 벗어 투혼을 발휘, 멤버들과 완벽한 시너지를 만들어내 명장면을 탄생시켰다. 씹씩리의 빛속 댄스 장면은 공식 유튜브를 통해 풀 버전도 공개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또 뮤직비디오 세트장 곳곳에 깨알 디테일도 눈길을 모았다. 유두래곤의 정비소에는 소속사 선배 유산술의 달력, 굿즈들과 함께 '비룡반점', '삼룡오일'(SAMR YONG OIL)이, 린다G 미용실에는 린다G가 추천하는 '저스틴메니 완성 핑클파마'와 낮익은 얼굴들, 비룡의 공중전화 부스에 붙은 '효리네 민박' 홍보스티커 등 시청자들에게 찾아보는 재미를 선사했다.

뮤직비디오와 함께 멤버들의 취향이 녹아 있는 솔로곡 역시 발매를 예고하며 기



대감을 끌어올리고 있다.

이날 유두래곤은 뮤직비디오 촬영 사이에 '두리쥬와'의 박도현(박현우) 작곡가, 송성경 편곡자와 만나 그의 마음을 흔들었던 '당가다당' 비트에 몸을 맡기고 녹음까지 마친 사실이 공개돼 또 다른 대박곡의 탄생을 예고했다.

오는 25일 MBC '쇼! 음악중심'을 통해

'다시 여기 바닷가'로 본격 데뷔 무대에 오르며 브레이크 없는 인기질주를 예고한 씹씩리. 같은 날 MV 풀버전과 또다른 곡 '그 여름을 틀어줘'를 공개한다.

이어 8월1일에는 유두래곤의 '두리쥬와'를 비롯해 린다G와 비룡의 명품 보이 스를 기대케 하는 멤버들의 솔로곡의 음원이 공개된다.

브로맨스 박장현, 8월 비연예인과 결혼

"소중한 사람 생겨"



4인조 보컬그룹 브로맨스의 리더 박장현이 8월 비연예인과의 결혼을 발표했다.

브로맨스의 소속사 RBW는 18일 "소속 아티스트인 브로맨스 리더 박장현이 오는 8월 모처에서 비연예인과 결혼을 하게 됐다. 인생의 새 출발을 앞둔 박장현의 앞날

에 따뜻한 축복 부탁드립니다"며 박장현의 자필 편지를 공개했다. 편지에서 박장현은 "우리 폴리(팬클럽)들에게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고, 또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께 꼭 알려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생겨 글을 쓴다"면서 "브로맨스 박장현이 되기 이전부터 가수라는 직업을 꿈꾸고 노래하는 사람으로 살아온 제가 30대 중반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박장현은 "참 오랜 시간 가수라는 이름을 지키기 위해 살았고 저의 불안정한 삶을 이겨내느라 안정을 찾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던 저에게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소중한 사람이 생겨 그분과 8월에 결혼을 하게 되었다"며 "앞으로 지켜내어야 하는 것이 더욱 많아질 것 같아 마음을 다잡게 된다"고 결혼 소감을 밝혔다.

또한 "모두가 어려운 이 시기에 이런 소식을 전하는 것이 조심스럽기도 하지만 응원해 주고 격려해 주었던 저의 가족과 모든 지인들 그리고 우리 브로맨스 멤버들과 RBW 식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브로맨스 박장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많은 응원과 사랑을 받으실 수 있게 만들어 주신 팬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고 인사했다.

-이하 팬카페에 올린 박장현 손편지 전문

안녕하세요. 브로맨스 박장현입니다.

우리 폴리들에게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고, 또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께 꼭 알려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생겨 글을 씁니다.

브로맨스 박장현이 되기 이전부터 가수라는 직업을 꿈꾸고 노래하는 사람으로 살아온 제가 30대 중반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참 오랜 시간 가수라는 이름을 지키기 위해 살았고 저의 불안정한 삶을 이겨내느라 안정을 찾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던 저에게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소중한 사람이 생겨 그분과 8월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켜내어야 하는 것이 더욱 많아질 것 같아 마음을 다잡게 됩니다.

모두가 어려운 이 시기에 이런 소식을 전하는 것이 조심스럽기도 하지만 응원해 주고 격려해 주었던 저의 가족과 모든 지인들 그리고 우리 브로맨스 멤버들과 RBW 식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브로맨스 박장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많은 응원과 사랑을 받으실 수 있게 만들어 주신 팬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모든 것에 진심인 더 좋은 사람이 되어 진실된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 모든 분들께 보답하며 살아가겠습니다.

- 박장현 올림 -

'日 스타' 미우라 하루마 사망... '열도 충격'

유서로 추정되는 문서 발견



일본의 청춘 스타 미우라 하루마(三浦春馬·30·사진)가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18일 NHK 등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우라 하루마는 도쿄 미나토구 자택에서 목을 맨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

나 사망했다.

경찰은 미우라 하루마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황을 조사 중이다.

미우라 하루마는 사고 당일 약속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소속사 관계자가 집을 찾아가 미우라 하루마를 발견했다. 그의 집에서는 유서로 추정되는 문서가 발견됐다.

미우라 하루마는 1990년생으로 NHK 드라마 '아구리' (1997)로 데뷔했다. 드라마 '코쿠센' (2002) 시리즈와 '사투라이 하이스쿨' (2009) '하가시노 게이코 미스터 리즈' (2012) '라스트 신데렐라' (2013) 등을 통해 대중적인 인기를 얻었다.

또한 영화 '나오코' (2008) '연공: 안녕 사랑하는 모든 것' (2008) '고쿠센-더 무비' (2009) '너에게 닿기를' (2010) '은혼2: 규칙은 깨라고 있는 것' (2018) '이런 야심한 밤에 바나나나니 사랑스러운 실화' (2018) 등에도 출연했다.

2007년 제31회 일본 아카데미상에서 신인상을 수상했다.

개그맨 노우진, '0.185%' 음주운전 혐의 입건



개그맨 노우진(40)이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가운데 누리꾼(네티즌)들이 실망감과 분노를 드러내고 있다.

1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노우진은 지난 15일 밤 서울 영등포구 올림픽대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 중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현재 노우진은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

돼 조사 중이다.

당시 노우진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85%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노우진을 상대로 음주운전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노우진 측 관계자는 이에 대해 17일 뉴스1에 "해당 사안에 대해서 확인 중에 있다"라고 얘기했다.

노우진의 음주운전 혐의 입건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사고가 안 나서 다행이기는 하지만 음주운전은 어쨌든 강력 처벌이다" "지금 이 어떤 시국인데" "사고 안 난 것을 다행으로 알고 자숙바란다" "음주운전 피해자들이 얼마나 고통 속에 사는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지난 2005년 KBS 20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한 노우진은 KBS 2TV '개그콘서트'에서 '달인' '뮤지컬' '그 래그래' 등의 코너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다.

지난 6월 종영한 SBS '정규의 법칙 in 코론'에 출연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자신의 이름을 내건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에 있다.

'여름방학', 왜색논란 사과 "디게임 전혀 참고 안해"

일본식 가옥 형태...일본 게임 포맷 유사 지적

tvN 새 예능 프로그램 '여름방학' 제작진이 첫방송 후 불거진 왜색 논란, 표절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

19일 '여름방학' 제작진은 프로그램 공식 인스타그램에 "시청에 불편함을 느끼신 분들께 사과 말씀드립니다"라며 사과문을 게재했다.

제작진은 먼저 촬영지에 대해 한달살이를 할 예쁜 마을을 찾았고 그 동네에서 가장 오래된 집을 찾았다면서 "다락과 3개의 마당이 있어 출연자들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리기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1950년대에 지어진 고택이었기에 제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원 집을 토대로 지붕색과 외관을 정리하는 정도만 공사를 진행했습니다"라며 "외부에 3개의 마당이 있어 요즘 시대에 집에서만 지내는 시간이 높아진 현실을 반영한 홈캉스 리얼리티라는 기획에 부합하는 조건을 지녔다고 생각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또 "집이나 내부공간은 그렇게 중

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크게 고민하지 못했고, 이 과정에서 시청자들이 느끼실 수 있는 불편함을 세심하게 고려하지 못한 것 같아 죄송한 마음입니다. 또한 촬영을 허락해주신 집 주인 할아버지, 할머니 내외분들께도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했다.

제작진은 "현재 시청자들이 주신 의견을 겸허한 마음으로 수용해 2차 촬영이 들어가기 전,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문과 창틀 등 집을 다시 손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나아진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

또 일본 소니사의 한 게임 포맷과 유사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특정 게임과 유사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해당 게임을 알지 못하며, 전혀 참고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라고 밝혔다.

지난 17일 처음 방송된 tvN '여름방학'은 정유미 최유식 그리고 게스트 박서준이 출연해 시골에서 한달살이를 하



는 내용을 담았다.

이들이 지내는 집이 일본식 가옥의 형태라며 왜색 논란이 일었으며, 포맷이 일본의 한 게임 포맷과 유사하다는 지적도 있었다.